

#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길형배, 김철후, 이지은, 이운규, 오승훈

- ❶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 ❷ 세부 업종별 2024년 실적과 2025년 전망
- ❸ 결론 및 시사점

2025 상반기

www.kimm.re.kr

# 기계산업연구 학술지 (舊, 기계기술정책) 원고모집 안내

※ 기존 '기계기술정책'이 '기계산업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산업연구」는 기계산업 분야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와 기계산업 정책 역량 결집으로  
국가정책 및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지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JOURNAL OF MACHINERY INDUSTRY

**논문주제** : 기계산업이나 기계기술 분야 정책연구

**투고대상** : 기계산업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학계 · 연구자), 대학(원)생

**원고분량** : 본지 편집양식 기준으로 25매 내외(참고문헌, 그림, 표 포함)

**투고기한** : 2025년 4월 18일(금)

**제출방법**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jmi.or.kr>)으로 제출  
※ 하단의 QR코드 스캔 시 양식 또는 제출서류 상세 확인 가능

**발행시기** : 2025년 6월 30일(월)

**원 고 료** : 300만 원/편(게재 확정 원고)

| 투고기한 |

2025년  
4월 18일(금)

**KIMM** 한국기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정책센터  
T. 042-868-7640 E. ckim@kimm.re.kr

「기계산업연구」는 기계분야 정책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지 않으며, 일부 논문은  
내부 발간 규정에 의해 이월 게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재 확정 시 유관기관을 통해 널리 배포됩니다.



※ 원고모집 안내는 하이브레인 공모전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길형배, 김철후, 이지은, 이운규, 오승훈

- ❶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 1
- ❷ 세부 업종별 2024년 실적과 2025년 전망 / 6
- ❸ 결론 및 시사점 / 29

## 기계기술정책 원문 찾아보기

-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새소식-정책지
- ☐ 웹페이지 : [https://www.kimm.re.kr/pr\\_policy](https://www.kimm.re.kr/pr_policy)

※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SUMMARY

- 2024년 기계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은 2.8% 감소한 150.1조 원, 수출은 소폭 감소, 2025년은 소폭 감소(2~4%) 전망
- 2024년 기계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50.1조 원, 수출·입은 각각 609억 달러(△0.8%, YoY), 538억 달러(3.8%, YoY)를 기록
- 2025년 기계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중동지역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생산, 수출 모두 2~4% 내외의 소폭 감소 전망
  - 플랜트 산업은 중동 플랜트 특수으로 전년 대비 성장이 기대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기회요인 존재
  - 전기차 캐즘,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이차전지 장비 시장은 불황 전망

〈표〉 기계산업 세부 업종별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세부 업종명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비고
공작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공작기계 수주/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li> <li>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생산, 수출 모두 감소 전망</li> </ul>
플랜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동지역 대형 담수&amp;발전 플랜트 수주 증가</li> <li>2025년 플랜트 수주액은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li> </ul>
에너지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내수시장 성장 둔화가 수출 감소에 영향</li> <li>중국·유럽 등의 주요 시장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li> </ul>
건설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미 수출 급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출 기록</li> <li>국내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2025년 건설기계 수출은 3~4% 감소 전망</li> </ul>
농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對미 농기계 수출 급감(전년 대비 44.1% 감소)</li> <li>농기계 수출 감소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li> </ul>
반도체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수출은 반등하여 전년 대비 24.5% 증가</li> <li>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시장 수요 증가로 2025년 반도체 장비 수출은 소폭 상승 전망</li> </ul>
디스플레이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제품 등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으로 수출 반등</li> <li>2023년 기저효과와 지속으로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 전망</li> </ul>
이차전지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캐즘,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이차전지 장비는 시장 불황 전망</li> </ul>

주: ☔: 불황, ☁: 침체, ☀: 안정, ☀: 호황



## 1.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 2024년 기계산업 생산은 전년(154.4조 원) 대비 2.8% 감소한 150.1조 원<sup>1)</sup>,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09억 달러를 기록(△0.8%)

\* 기계기술정책 115호에서 2024년 기계산업 생산, 수출입은 0~2% 성장을 예상했으나, 건설·농기계 등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진으로 전년 대비 생산은 2.8% 감소, 수출은 0.8% 감소, 수입은 3.8% 증가

○ 2024년 기계산업 생산은 수출의 소폭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3년 대비 소폭 감소로 추정하며,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반영

- 미·중 패권경쟁,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러-우 전쟁 등), 중국의 제조업 자립과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침체 지속 우려<sup>2)</sup>

\* 對중 수출 감소(△13.9%)로 수출은 소폭 감소(△0.8%),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3.8%)

- 글로벌 건설경기 불황, 對미 농기계 수출 급감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024년 기계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분석

\* 2024년 4분기 건설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 중동지역의 대형 플랜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동지역 수주액: 35.3억 달러(2022년) → 113.7억 달러(2023년) → 156.3억 달러(2024년)

○ 2024년 기계산업 수출은 반도체 장비(MTI 732, 24.5%)는 증가하였지만 산업기계(MTI 72, △11.0%)는 하락하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0.8%)

- (수출) 반도체 장비 수출이 전년 대비 24.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산업기계는 전년 대비 11.0% 감소

\* 對미 농기계 수출 감소(202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산업기계 수출은 감소하였고,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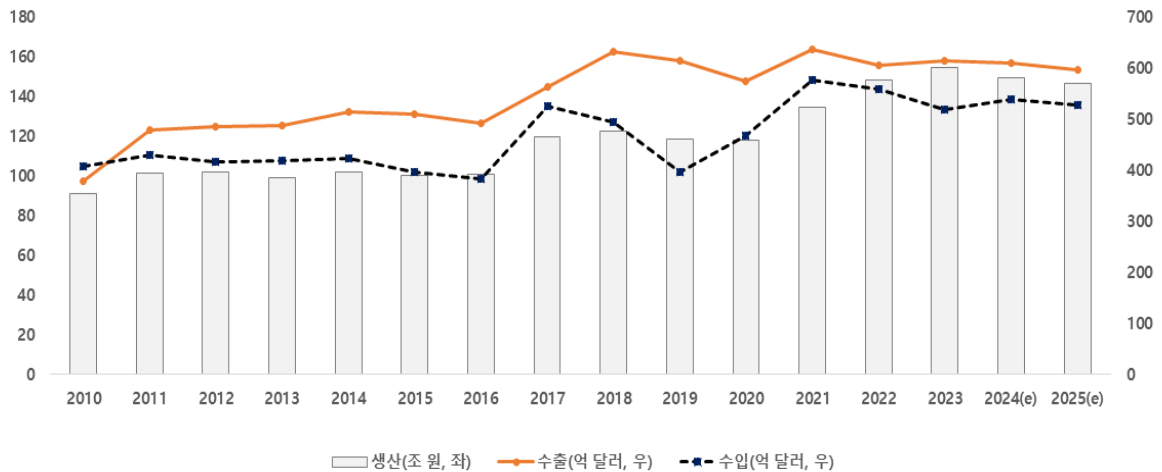
- (수입) 기계산업 전체 수입은 전반적인 증가(전년 대비 3.8%)이며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장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262.0%)

\* 평판디스플레이장비(MTI 736) 수입(262%): 1.8억 달러(2023년) → 6.5억 달러(2024년)

\* 반도체제조용장비(MTI 732) 수입(6.5%): 208.9억 달러(2023년) → 222.6억 달러(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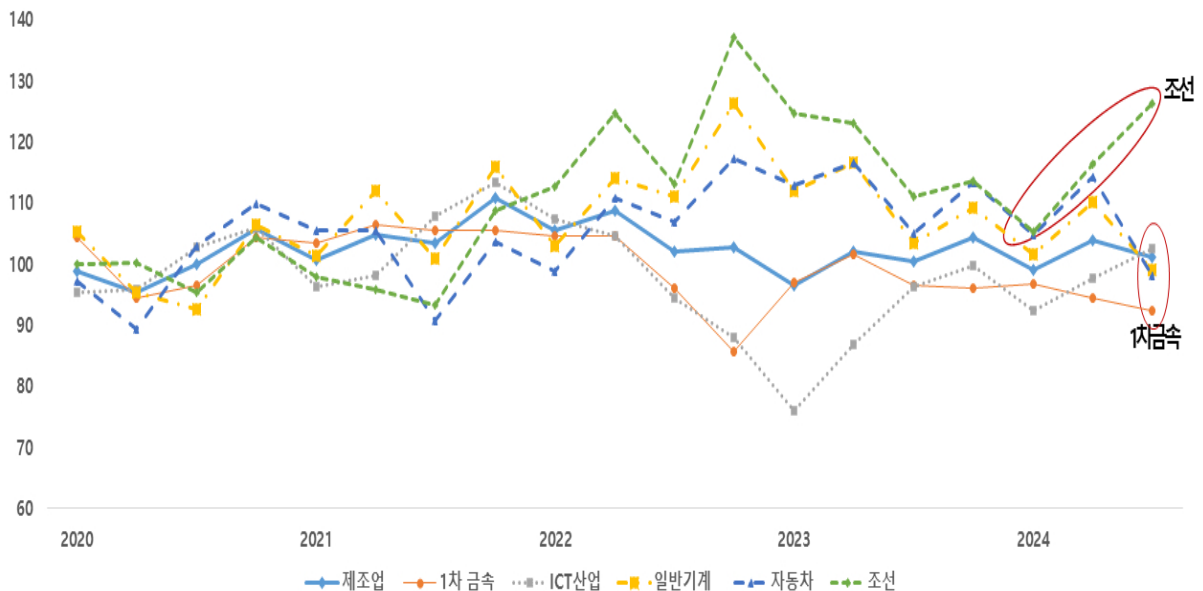
1) 2023년까지의 생산액은 통계청의 KSIC C29(일반기계)의 통계를 활용, 2024년 생산액은 기계산업진흥회의 생산지수(2020년 100기준)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2) 김태영, 박상수, 일반기계산업 수출구조 및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2024.10.



<그림 1>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추이와 2025년 전망<sup>3)</sup>

- 산업별 가동률지수는 조선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CT산업의 가동률이 2022년 4분기 이후 상승세
- 조선 산업은 2023년 4분기에 이후 반등하였으며, 일반기계 산업은 2022년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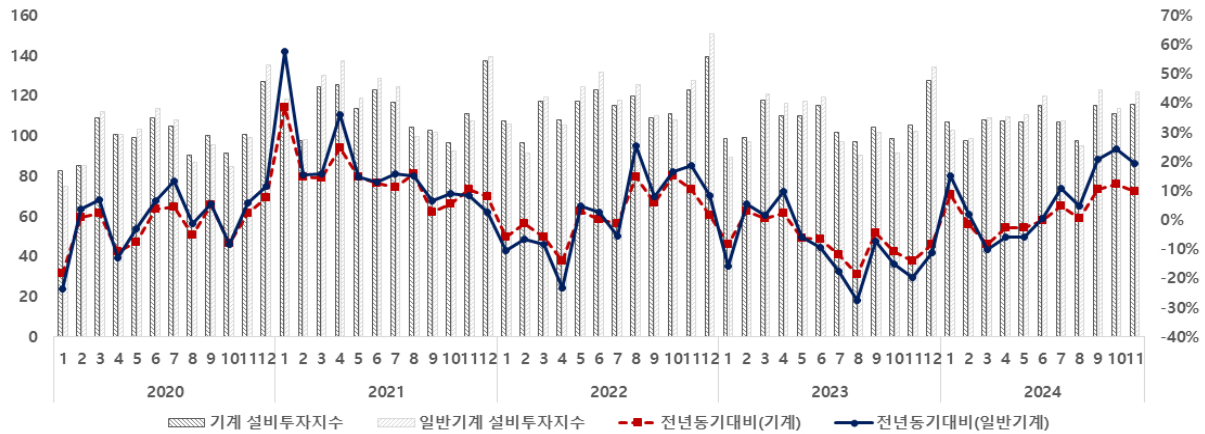


<그림 2> 기계산업 주요 수요 산업의 업종별 가동률지수<sup>4)</sup>

3) 생산은 통계청에서 인용, 수출입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인용 (MTI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및금형), 79(기타기계류), 732(반도체제조용장비), 736(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4) 통계청 제조업 가동률지수(원지수) 인용·재구성(2020년=100 기준)

- 일반기계산업 설비투자지수는 2024년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최대 하락률( $\Delta 10.1\%$ ) 기록 후, 동년 6월부터 반등하여 지수가 상승하여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림 3> 기계·일반기계 설비투자지수<sup>5)</sup>

- 국가별 수출은 유럽 지역(독일 제외)에서 23% 정도 감소하였지만, 미국, 중동 등에서의 수출이 25% 내외 증가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입이 증가하며 전체 수입 증가(3.8%)
  - \* 중국 수입은 크게 하락하였던 2023년( $\Delta 33.5\%$ )의 기저효과로 2024년 수입은 큰 폭의 증가(51.5%)

<표 1> 2024년 기계산업 지역별 수출입 현황(백만 달러)<sup>6)</sup>

구분	수출				수입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률(%)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률(%)	
			2023	2024			2023	2024
중국	13,209	11,377	$\Delta 0.3$	$\Delta 13.9$	7,148	10,828	$\Delta 33.5$	51.5
미국	13,072	16,241	4.2	24.2	8,472	7,624	$\Delta 14.2$	$\Delta 10.0$
일본	3,145	2,942	$\Delta 3.4$	$\Delta 6.4$	7,718	10,331	$\Delta 35.5$	33.9
독일	981	872	$\Delta 1.4$	$\Delta 11.2$	2,361	4,536	$\Delta 40.4$	92.1
중동	2,487	3,157	18.4	26.9	188	408	$\Delta 66.6$	116.6
유럽*	10,666	8,171	12.3	$\Delta 23.4$	12,596	11,193	14.2	$\Delta 11.1$
중남미	3,535	3,826	0.5	8.2	1,237	946	386.7	$\Delta 23.5$
아시아*	11,046	12,469	$\Delta 19.5$	12.9	11,672	7,745	62.8	$\Delta 33.6$
계**	61,404	60,902	1.6	$\Delta 0.8$	51,842	53,789	$\Delta 7.0$	3.8

\* 유럽 통계는 독일 제외 / 아시아 지역 통계는 일본, 중국 제외

\*\* 총계는 기타지역까지 모두 포함

5) 통계청 설비투자지수(원지수, 2020년=100 기준), 통계에서 기계는 일반, 전기/전자, 정밀, 기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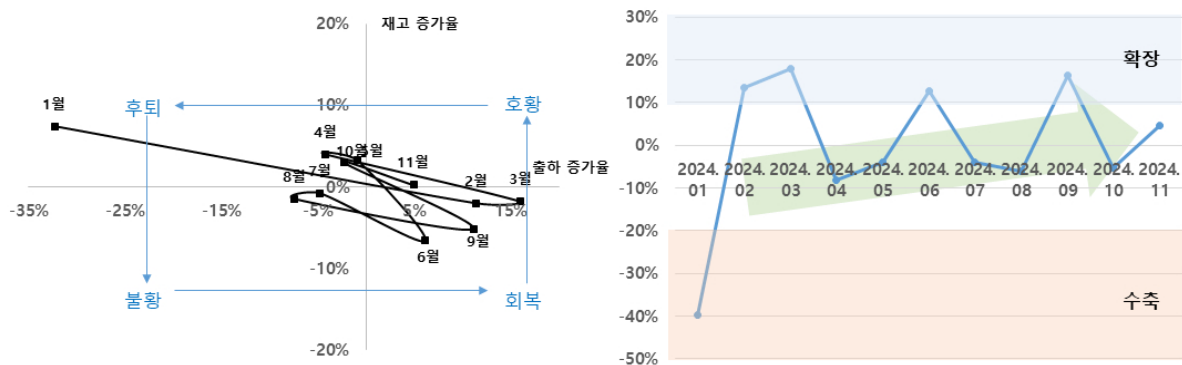
6) 한국무역협회 통계(MTI 71, 72, 75, 79, 732, 736 기준)

□ 2025년 기계산업은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 전기차 캐즘 지속 및 주요국 PMI지수<sup>7)</sup> 정체 혹은 하락세 등을 종합하여 생산, 수출 감소(2~4% 감소) 수준으로 전망

○ 2024년 재고순환지수는 2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지수가 개선되었지만 작년 대비 경기 확장성은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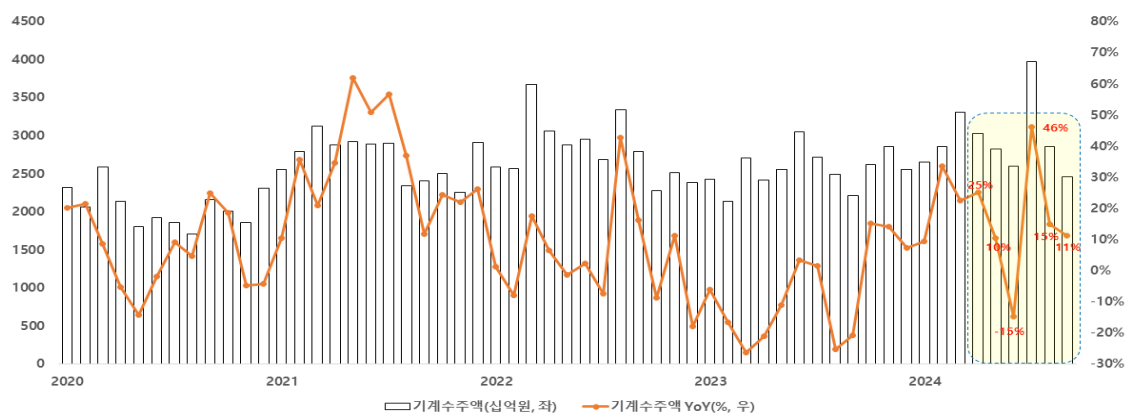
- 2023년과 유사한 사이클을 보이며 2024년 3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여 2024년 11월에는 출하지수(109.2)가 가장 높음

- 재고순환지수로 살펴보면 2024년 초에는 후퇴 지표( $\Delta 40\%$  이상)로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여 경기확장 국면으로 진입



<그림 4> 2024년 기계산업의 재고·출하순환도(좌), 재고순환지수(우)<sup>8)</sup>

○ 2024년 기계수주액은 2023년 9월에 반등하여 2023년 대비 11.8% 증가하였고 월별로도 전반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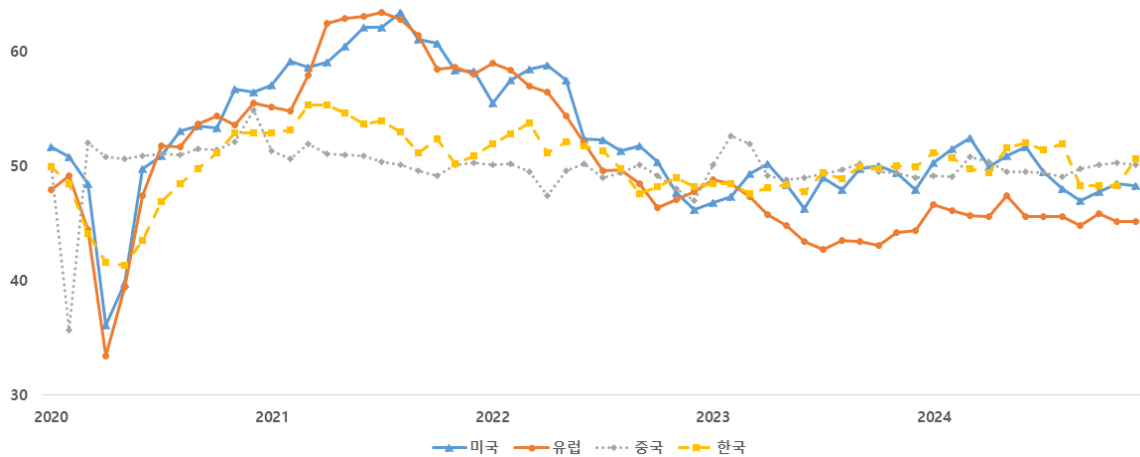
<그림 5> 기계 수주(불변 금액, 민간 수요) 규모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sup>9)</sup>

7)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를 의미하며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0~100사이의 수치로 나타냄. 50이하를 기록하면 경기침체, 50 이상은 경기 확장으로 전망

8) 통계청 기계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원지수)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자체 분석

9) 통계청 기계 수주(불변금액 기준, 선박 제외)

- PMI지수 정체 혹은 하락세에 따라 2025년 기계산업 생산은 소폭의 하락세를<sup>10)</sup> 보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인하여 주요국들의 PMI지수가 모두 50 이하로 분석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이후 하락 혹은 정체를 반복
  - \*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모두 PMI지수는 하락세 혹은 정체로 분석



<그림 6> 주요국의 제조업 PMI<sup>11)</sup>

- 중국 경제 성장세의 정체, 對중 글로벌 디커플링 강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2025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 실질 GDP 성장률(% , 2024년부터는 전망치): 1.4(2023) → 2.2(2024) → 2.1(2025)<sup>12)</sup>
  - 미주 지역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중동지역의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는 2025년 일반기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중동지역 수주액: 35.3억 달러(2022년) → 113.7억 달러(2023년) → 156.3억 달러(2024년)
  -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성장의 정체로 기계산업 생산, 수출입은 모두 2024년 대비 소폭(2~4%) 하락세로 전망
- 이번호부터 ‘업종별 2024년 실적과 전망’에 농기계·에너지기계·이차전지 장비를 추가, 7개 세부 산업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개편하여 신산업 관련 기계산업의 과급력 분석 강화

10)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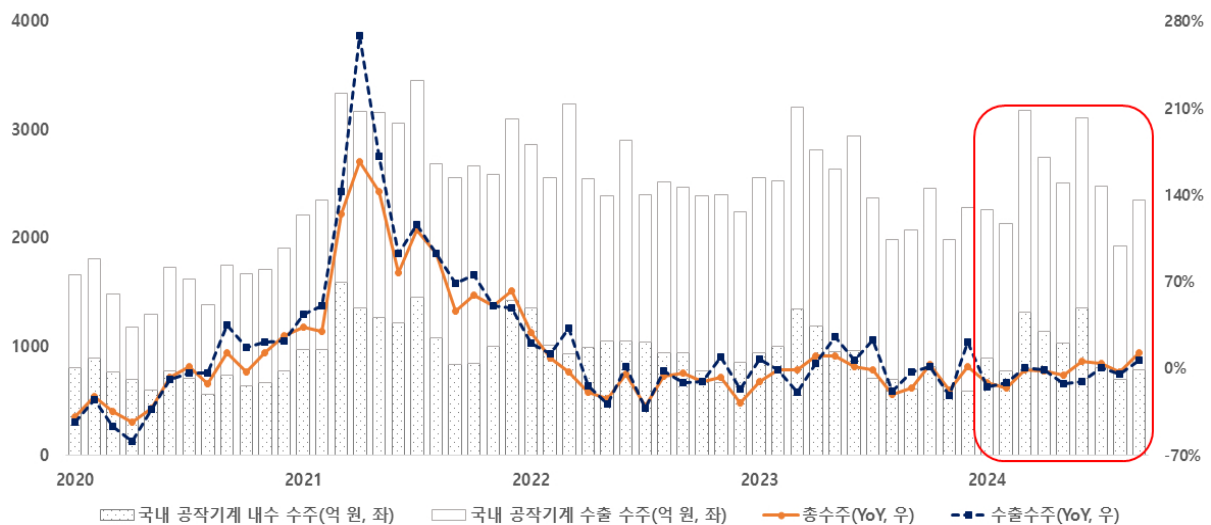
11) US Purchasing Managers Index; The Statistics Portal(Statist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12)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2024.11.

## 2. 세부 업종별 2024년 실적과 2025년 전망

### □ 공작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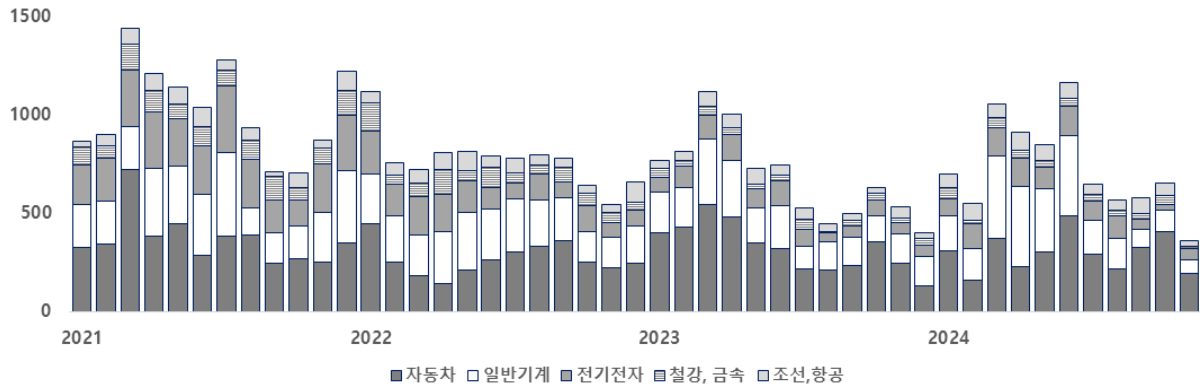
- 2024년 11월까지 공작기계 수주 누계액은 약 2.7조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정체 혹은 소폭 감소 경향
  - 2024년 11월 누계 기준 내수 수주 약 1조 원, 수출 수주 약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내수는 1.9% 증가, 수출은 5.4% 감소
  - 공작기계 수주액은 6월, 7월, 9월(각각 5.8%, 4.4%, 12.9% 증가)을 제외한 모든 달이 전년 동기 대비 1~16%까지 축소되었고(3월 △0.9%, 2월 △15.7%), 2024년 11월 누계 기준 2.8% 감소하며 침체 분위기가 지속
  - 수출 수주액은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며, IT 기기 수요 증가 등으로 폭등했던 2021년 이후 감소세 지속



<그림 7> 국내 공작기계 월별 수주 및 증감률<sup>13)</sup>

13)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월별 수주 자료, SIMTOS 산업정보(국내 공작기계 시장 동향) 인용·재구성

- 업종별 내수 수주는 조선·항공(36.7%)이 상승을 주도하며 전년 대비(11월 누계) 3.1% 증가
  - 자동차(△13.0%) 업종이 전년 대비(11월 누계) 하락했지만, 일반기계(18.1%), 전기전자(12.4%), 철강·금속(6.2%)의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그림 8> 주요 수요업종별 공작기계 내수 수주(억 원)<sup>14)</sup>

- 지역별로는 중남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하던 아시아(△41.6%, 중국 제외), 유럽(△26.1%, 독일 제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3.9% 감소

<표 2> 연도별 공작기계 완제품 지역별 수출(백만 달러, %)<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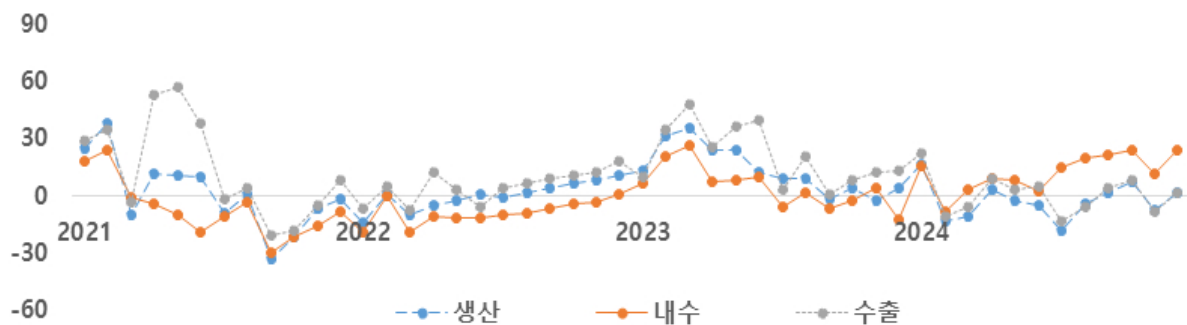
연도 \ 지역	중국	아시아 (중국 제외)	미국	독일	유럽 (독일 제외)	중남미	계
2019	486	545	433	195	474	91	2,324
2020	369	520	314	123	303	72	1,783
2021	435	464	411	156	564	79	2,194
2022	268	574	545	207	598	120	2,398
2023	275	937	800	206	700	136	2,920
2024 (전년 대비 증감률)	220 (△20.0)	547 (△41.6)	714 (△10.8)	178 (△13.5)	517 (△26.1)	150 (10.2)	2,514 (△13.9)

주: MTI 7231(금속절삭가공기계), 7232(금속성형가공기계)의 합계 기준

14)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월별 수주 자료, SIMTOS 산업정보(국내 공작기계 시장 동향) 인용·재구성

15)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인용·재구성

- 2025년 공작기계산업은 내수 부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글로벌 저성장 등으로 인해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할 전망
  - 2025년 공작기계 생산은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3.0% 감소할 전망<sup>16)</sup>
  - 2025년 공작기계 수출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
    - \* (미국) 대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조선,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수요는 발생할 수 있으나,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전반적 설비투자 수요는 감소 예상
    - \* (중국) 공작기계 자급률 증가, 저비용 대량 생산 구조 등은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5년 자동차 산업은 국내 판매 부진의 장기화에도 전년도 기저에 의한 반등으로 내수는 소폭 증가하나 수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생산이 부진할 전망<sup>17)</sup>
    - \* (내수) 금리 인하 기대, HEV 판매 증가, 전년도 내수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 전망이나, EV 캐즘, 시장 불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증가한 166만 대에 그칠 전망
    - \* (수출)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악화, 해외생산 증가, 재고 누적 등의 제한 요인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270만 대 예상
    - \* (생산)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407만 대 예상



<그림 9> 자동차 산업 월별 동향(% , YoY)<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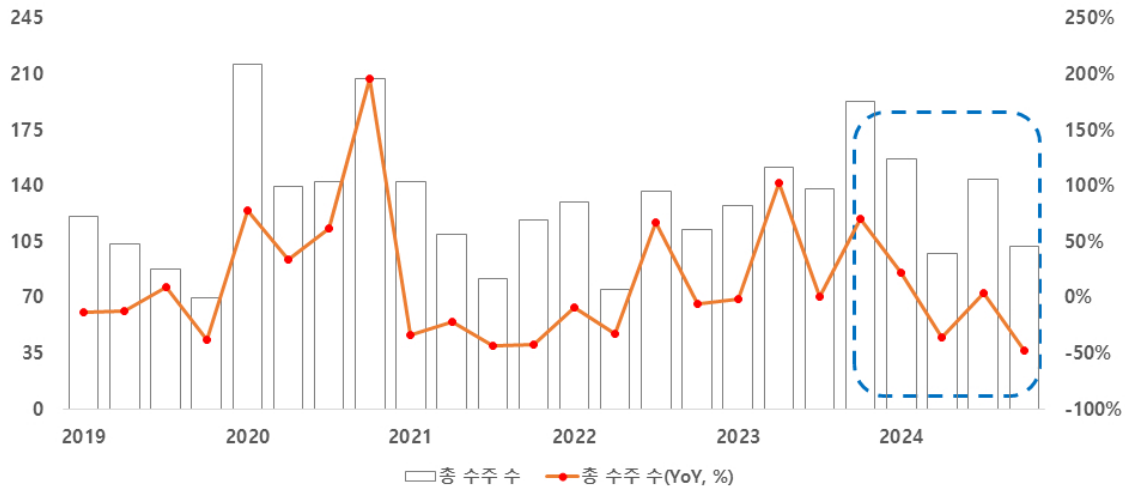
16) 산업연구원, 2024년 경제·산업 전망, 2024.11,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2025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2025.1

17)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 자동차산업평가 및 2025년 전망, 2024. 12.

18)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보고서 중 전년 동월비 증가율 활용

## □ 플랜트

- 2024년 플랜트 산업은 전년 대비 담수&발전(190.7%)과 Oil&Gas(115.3%)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9% 성장
- 2024년 수주액은 337.8억 달러로 2023년 수주액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2024년 수주 프로젝트의 수는 501건으로 전년(611건) 대비 18.0% 감소



<그림 10> 분기별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sup>19)</sup>

- 중동지역에서의 대형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와 사우디의 Oil&Gas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증가
  - \* 중동지역 수주액: 35.3억 달러(2022년) → 113.7억 달러(2023년) → 156.3억 달러(2024년)
- 특히, Aramco(사우디)의 Oil&Gas 플랜트 증설로 국내 EPC 기업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급증
  - \* 삼성E&A·GS건설, 사우디(Aramco)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 수주(72.3억 달러)<sup>20)</sup>
- 담수&발전 플랜트의 수주가 2023년 대비 190.7%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87.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카타르 등의 중동 국가의 30만 톤/일 이상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 삼성물산: 28.4억 달러(4조 원 규모)의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프로젝트(카타르 전체 전력량의 약 16%, 담수량은 약 17%를 담당)를 수주<sup>21)</sup>
  - \* LG화학: 오만 구브라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 역삼투 분리막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구축되어 있는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RO멤브레인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외에 플랜트 핵심부품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19)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재구성(비회원사의 수주는 누락되었을 수 있음)

20) 한국경제 기사를 인용 및 재구성(<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359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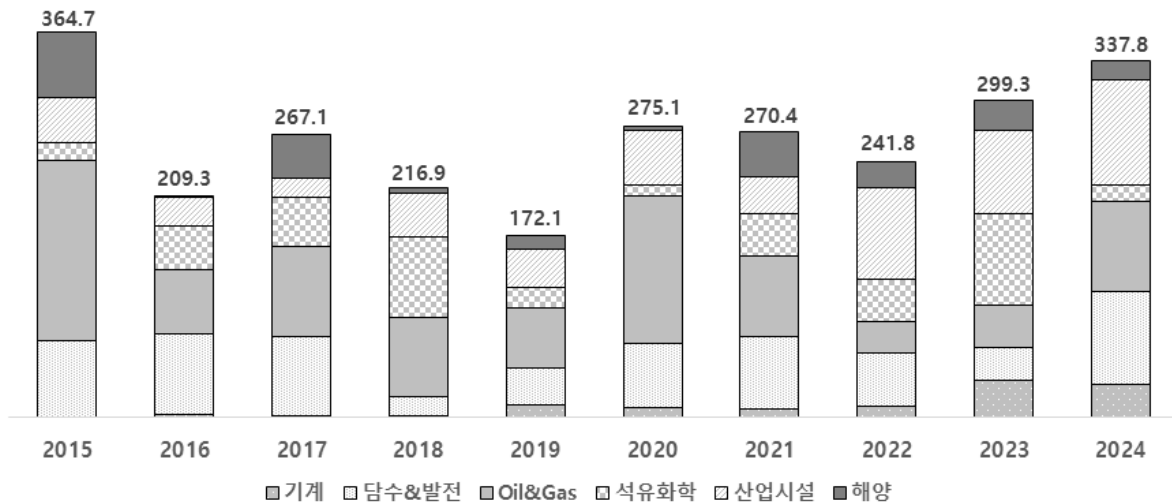
21) 인더스트리 투데이 기사를 인용 및 재구성(<https://www.industr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7>)

〈표 3〉 지역 및 섹터별 플랜트 수주 실적(억 달러, 2024년)<sup>22)</sup>

지역 \ 섹터	담수&발전	석유화학	산업시설	Oil&Gas	해양	기계	계 (전년 대비)
아시아	11.1	1.9	24.5	9.6	4.1	11.9	63.1 (28.8%)
중동	49.2	12.9	3.3	76.1	11.5	3.9	156.3 (37.5%)
아프리카	1.3	0.0	0.9	0.0	0.0	0.0	2.2 (△88.1%)
미주	1.2	0.2	42.3	0.0	0.0	9.9	53.3 (△46.7%)
유럽	24.7	0.8	27.4	0.0	3.6	6.4	62.9 (245.6%)
계 (전년 대비)	87.5 (190.7%)	15.3 (△82.4%)	98.4 (24.6%)	85.7 (115.3%)	19.2 (△30.2%)	32.0 (△10.4%)	337.8 (12.9%)

- 석유화학 기초소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는 감소하였으나, Aramco(사우디)의 정유, 가스 플랜트 투자 확대 및 중동지역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증가로 전체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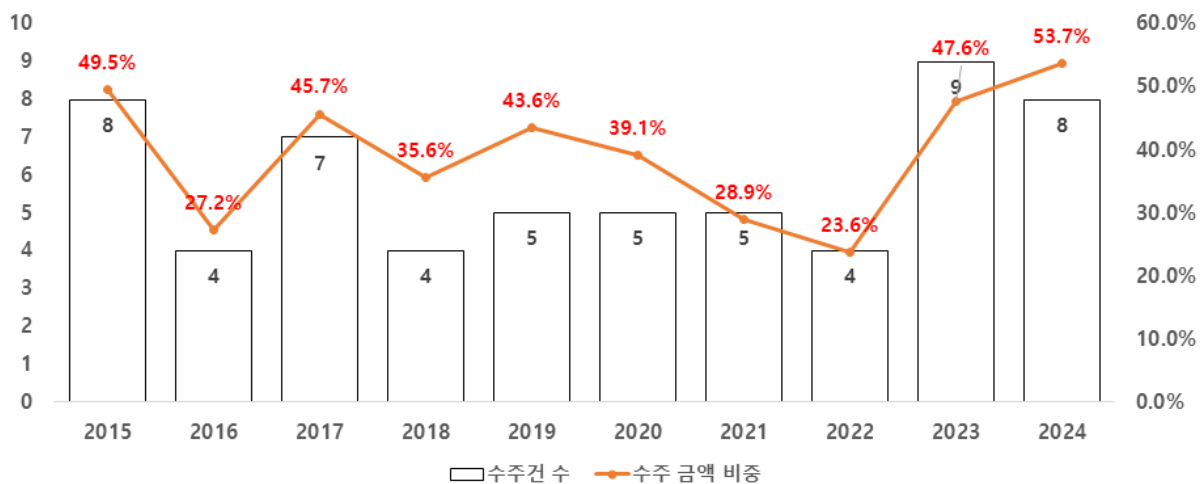
\*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는 2023년 87.1억 달러에서 2024년 15.3억 달러로 감소

〈그림 11〉 플랜트 수주 현황(억 달러)<sup>23)</sup>

22)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재구성(비회원사의 수주는 누락되었을 수 있음)

2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플랜트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재구성

- 2022년 최저점이었던 대형 프로젝트 수주(10억 달러 이상)는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발 대형 플랜트 투자로 비중 증가(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주액 기록)
  - \* 2023년 10억 달러 이상 건수 비중 1.5%, 수주 금액 비중 47.6%
  - \* 2024년 10억 달러 이상 건수 비중 1.6%, 수주 금액 비중 53.7%
- 석유화학 소재 공급 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 축소로 2024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가 전무



<그림 12> 10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수주<sup>24)</sup>

- 누적된 과잉공급 및 중국 석유화학 시장 내 주요 제품의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안정화, 주요 화학제품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제품 마진이 소폭 개선되었고 석유화학 기업은 생산시설 가동률을 2023년 대비 상향 조정<sup>25)</sup>
  -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NCC 등의 생산설비 증설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 수익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 LG화학 2024년 매출액 48.9조 원(전년 대비 △11.5%), 영업이익 9,168억 원(전년 대비 △63.8%) 기록<sup>26)</sup>
    - \* LG화학은 여수 NCC를 쿠웨이트 석유공사(KPC)에 매각 추진<sup>27)</sup>

24)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재구성(비회원사의 수주는 누락되었을 수 있음)

25)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13대 주력산업편, 20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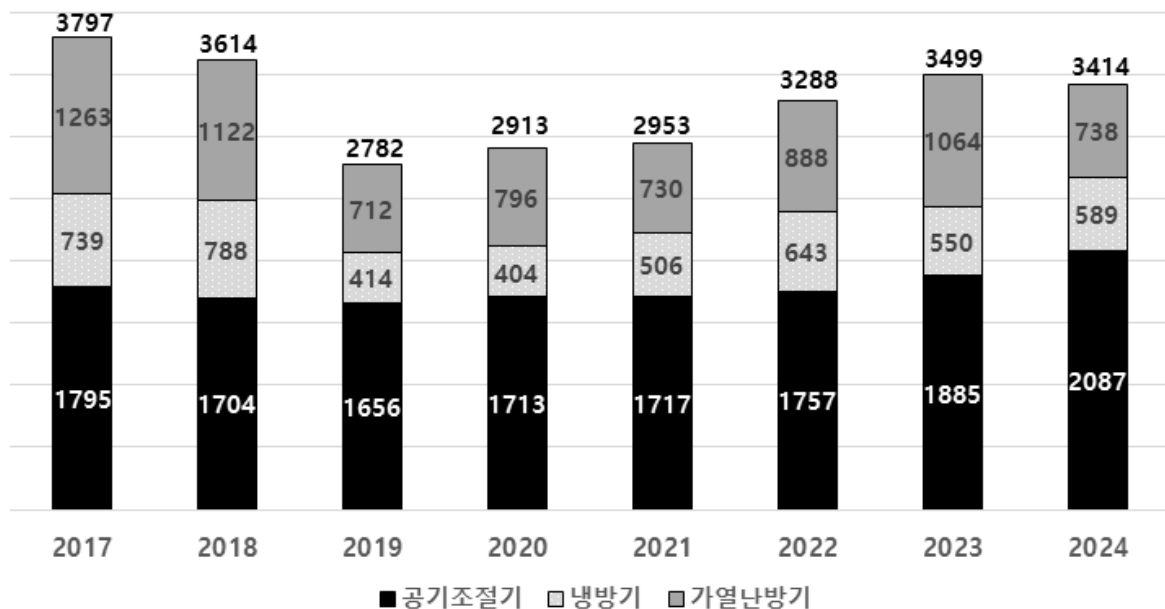
26) LG화학 정기 컨퍼런스콜에서 인용 및 재구성

27) 이데일리 뉴스를 인용 및 재구성(<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39117208&mediaCodeNo=257>)

- 2025년 플랜트 산업은 중동발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담수&발전 플랜트 확대 등으로 2024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Aramco(사우디) 등 정유업계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카타르 등 중동 국가의 담수화 플랜트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플랜트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원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되고 있어 2025년 플랜트 수주액은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sup>28)</sup>

## □ 에너지기계

- 2024년 에너지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하여 34.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전년 대비 24.9% 감소
  - \* 에너지기계는 MTI 713에 해당되는 공기조절기, 냉방기, 가열 난방기로 분류
- 2019년 가장 낮은 수출을 기록한 이후, 2023년 수출은 2018년과 근접한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



<그림 13> 연도별 에너지기계 수출(단위: 백만 달러)<sup>29)</sup>

28) 한국수출입은행, 2025년 경제 산업 전망, 2024.12.

29) 한국무역협회, MTI 713(에너지기계) 기준

-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 둔화로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가동률이 감소하여 아시아 지역의 가열난방기 수출 급감  
\* 가열난방기(MTI 7133) 수출: 8.9억 달러(2022년) → 10.6억 달러(2023년) → 7.4억 달러(2024년)
- 미국의 탈탄소 정책 및 고효율 제품 선호도 증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탱크리스 온수기(순간 온수기)의 수요 확대
- 공기조절기(MTI 7131)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북미, 중남미 등의 상업용·중대형 냉방기 수출의 증가 효과로 분석

<표 4> 에너지기계 대륙별 수출 현황(단위: 백만 달러)<sup>30)</sup>

순위	대륙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1	아시아	1,102	1,030	978	1,110	1,227	922	△24.9%
2	북미	564	607	738	827	855	1,031	20.7%
3	유럽	466	551	677	731	627	610	△2.8%
4	중동	393	512	298	334	502	472	△6.0%
5	중남미	185	165	202	220	205	268	30.9%
6	아프리카	45	24	31	31	53	76	42.4%
7	대양주	27	24	30	34	30	35	15.6%
합계		2,783	2,912	2,953	3,287	3,499	3,41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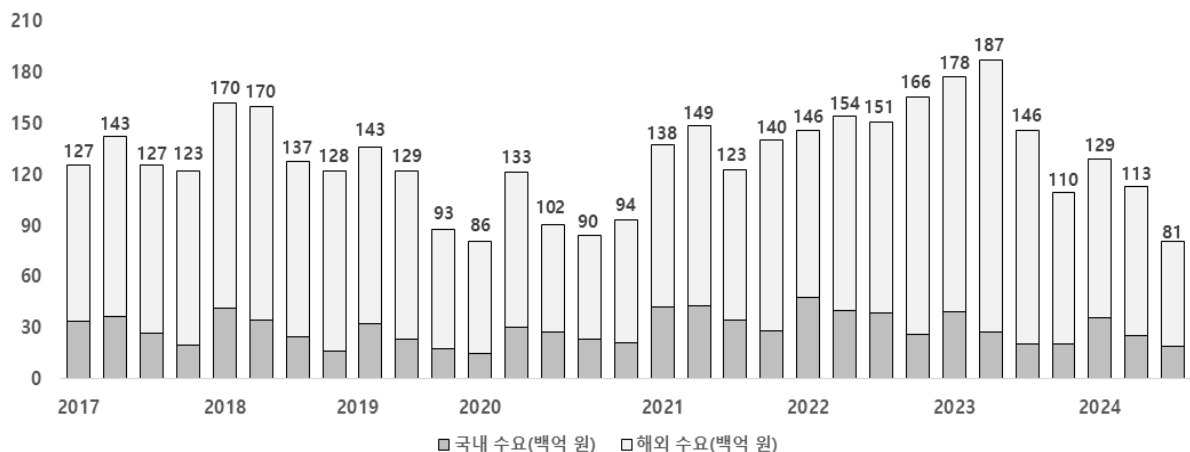
- 2025년 에너지기계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관련 품목 수요의 확대가 기대되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료 상승 등이 악재로 꼽힘
- (내수) 국내 소비자의 전기제품 선호도 증가로 가스기기 산업의 시장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소비 위축과 더불어 기업의 고용·생산·투자 등이 동반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지역난방 공급망 확대 및 신규 수요 감소로 2023년 대비 8% 이상 내수가 감소
- (수출)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30) 한국무역협회, MTI 713(에너지기계) 기준

- 미국 시장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에너지기기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 소비자 맞춤형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럽 대상 수출은 소폭의 감소 예상
-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에너지기기 수출도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 가스연소기 공장의 가동을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 건설기계

- 2024년 3분기까지 건설기계의 내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 해외 수요는 50.9%나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44.7% 감소
- 해외 수요는 2021년부터 증가세에 진입 후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45~67%)를 보였으나, 2023년 3분기 11.5%를 마지막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3분기에는 △50.9%를 기록, 조사 기간 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국내 수요는 2021년의 급등세(36~56%)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감소하더니 2024년 3분기는 △7.4%를 기록



<그림 14> 건설광산기계 분기별 국내외 수요<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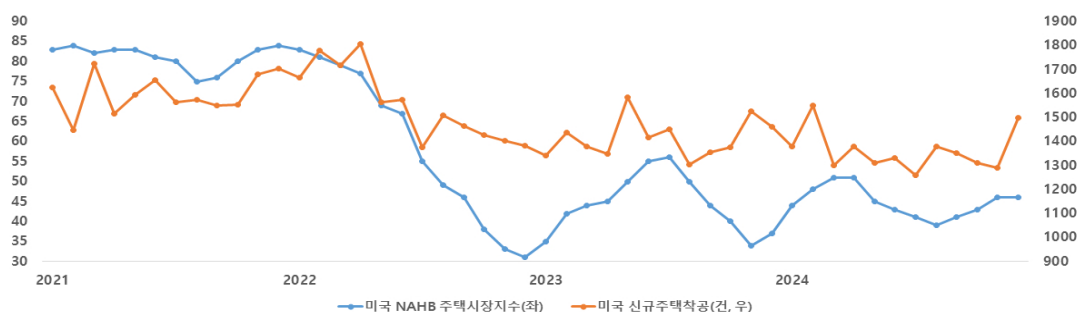
31) 통계청, 수요자/기종별 기계수주(기계수주동향조사) 인용·재구성

- 2024년 건설기계 수출은 5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2021~2023년 수출 호조로 인한 재고 증가 등의 기저효과로 인하여 큰 폭의 수출 감소를 기록
- 수출 상위 10개국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Delta 75.3 \sim \Delta 10.7\%$ )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對러시아 수출액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수출 제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3% 감소

<표 5> 건설기계 주요국 대상 수출 현황(백만 달러)<sup>32)</sup>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1	미국	1,330	1,055	1,525	2,175	2,528	1,732	$\Delta 31.5\%$
2	벨기에	729	648	879	911	902	553	$\Delta 38.7\%$
3	일본	308	233	279	302	306	241	$\Delta 21.2\%$
4	튀르키예	37	77	162	191	283	210	$\Delta 25.8\%$
5	인도(인디아)	185	166	223	195	211	188	$\Delta 10.7\%$
6	중국	604	666	474	263	191	142	$\Delta 25.7\%$
7	호주	110	114	161	177	164	132	$\Delta 19.5\%$
8	사우디아라비아	96	77	105	160	211	118	$\Delta 44.1\%$
9	러시아	260	217	428	408	441	109	$\Delta 75.3\%$
10	영국	141	107	241	225	177	107	$\Delta 39.4\%$
전체 수출		5,804	4,900	6,708	7,170	7,279	5,171	$\Delta 29.0\%$

- 이러한 기조는 러시아 수출 제재 지속, 중동발 리스크 지속, 건설기계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북미·유럽의 경기침체 및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25년에도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될 전망
- 2022년 12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2023년부터는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미국 주택건설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對미 수출은 유지 또는 소폭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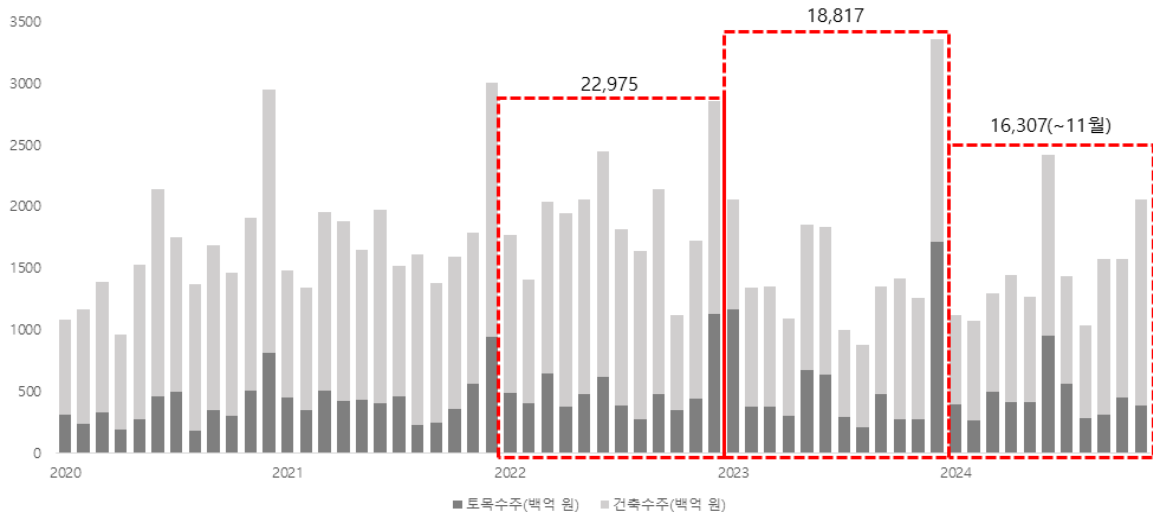


<그림 15> 미국 신규주택착공·NAHB 주택시장지수<sup>33)</sup>

32) 한국무역협회, MTI 725(건설광산기계) 기준, 상위 10개국은 2024년 11월 누계 기준으로 도출

33) Trading Economics(<https://ko.tradingeconomics.com/>) 미국 주택지표 인용·재구성

- 2024년 11월까지 국내 건설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5% 증가한 163조 원을 기록
  - 23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22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2023년 누적 수주액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림 16> 국내 건설 월별 수주액<sup>34)</sup>

- 2025년 국내 건설 수주는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의 감소세가 조금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3~2024년 2년간의 침체 기저효과로 민간(4.1%), 건축(3.7%)의 소폭 증가를 기대

<표 6> 국내 건설 수주 전망(조 원)<sup>35)</sup>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F)
수주액 (증감률, %)	공공	52.1 (8.4)	56.0 (7.5)	57.0 (1.7)	66.1 (14.4)	66.4 (0.5)	65.3 (△1.7)
	민간	142.0 (20.4)	156.0 (9.9)	166.5 (6.8)	140.7 (△26.2)	139.5 (△0.9)	145.1 (4.1)
	토목	44.7 (△9.7)	53.6 (20.0)	58.4 (9.0)	72.4 (18.3)	75.7 (4.6)	75.5 (△0.3)
	건축	149.4 (28.2)	158.4 (6.0)	165.1 (4.2)	134.3 (△28.2)	130.1 (△3.1)	135.0 (3.7)
	계	194.1 (16.9)	212.0 (9.2)	223.5 (5.4)	206.7 (△16.8)	205.8 (△0.4)	210.4 (2.2)

34) 통계청, 국내건설수주액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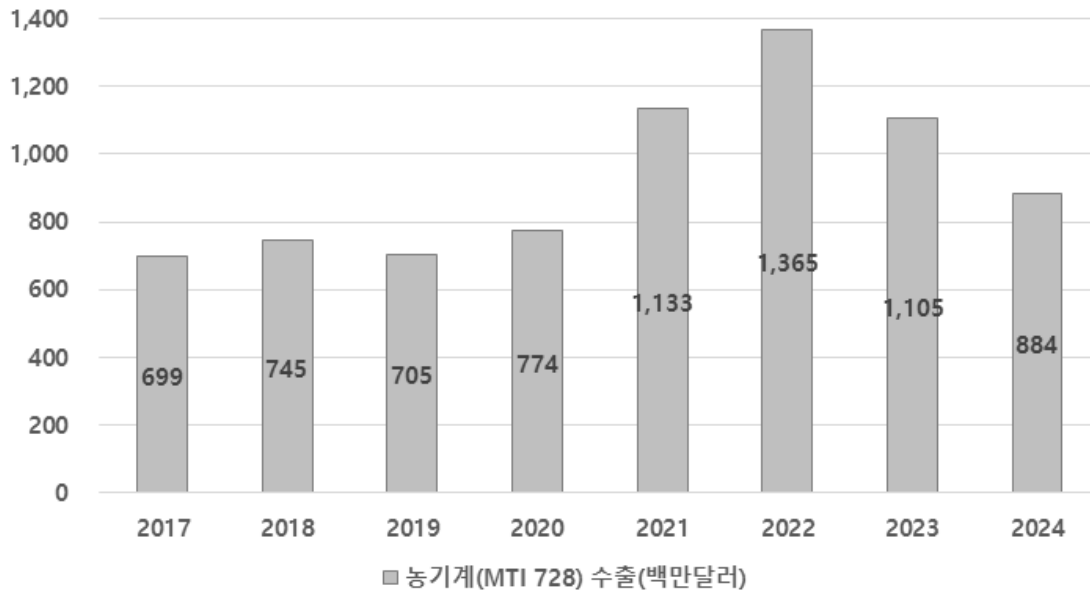
3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5년 건설경기 전망, 2024.12. 인용 및 재구성

- 2025년 건설기계는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Delta 1.5 \sim \Delta 0.5\%$ ),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Delta 4 \sim \Delta 3\%$ )를 전망<sup>36)</sup>
  - 2025년 건설기계 국내 판매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선별적 수주 등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의 감소세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
    - \* 전년 대비 3.6% 감소한 SOC예산(25.5조 원)도 내수 침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5년 건설기계 수출은 약 65%를 차지하는 북미·유럽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주요 수출국인 북미·유럽 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비용 증가로 건설장비 구매 부담 증가, 인프라 재정 투자 감소가 진행되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건설장비 수요가 급감
    -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정에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세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 (EU)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공공 인프라 투자 사업의 지연, 건설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신규 주택 건설 침체 등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지속적인 글로벌 건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배터리 관련 광물 생산 수요 증가로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광산 장비 중심) 증가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인한 브라질 지역의 리튬 채굴 증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페루의 구리 채굴이 증가
  - 또한, 인도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가티 샷티(Gati Shakti)를 통해 1조 2천억 달러(약 1,665조 원)를 투자하는 등 스마트시티 건설, 해안도로 프로젝트 등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 향후 인도에서의 건설장비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36) 국토일보, 2025년 건설기계산업, 수출·내수 동반하락 예고, 2025.1.에서 인용

## □ 농기계

- 2024년 농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20.1%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
  - 2017년 이후 증가 추가였던 농기계 수출은 2022년 13.6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



<그림 17> 연도별 농기계 수출 추이(단위: 백만 달러)<sup>37)</sup>

- 이러한 감소는 농기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
  - \* 對미 농기계 수출 변화: 1,005백만 달러(2022년) → 590백만 달러(2024년, △44.1%)
  - \* 코로나19 당시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비파머(Hobby Farmer)’의 등장으로 100마력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 수출량이 늘었으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급감
- 트랙터 판매 세계 4위 시장인 튀르키예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641%)한 점은 향후 농기계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튀르키예 농기계 시장은 정부의 농촌 현대화 정책으로 노후화된 제품을 교체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잠재성이 큰 편으로 분석<sup>38)</sup>
  - \* 미국의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으로의 농기계 수출 증가(245.4%)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37) 한국무역협회, MTI 728(농기계) 기준

38) 농민신문, “세계 4위 트랙터시장 튀르키예를 잡아라”...대동, 2028년까지 연간 3,000 대 판매 목표 시동, 2024.10.에서 인용

〈표 7〉 농기계 주요국 대상 수출 현황(백만 달러)<sup>39)</sup>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1	미국	459.7	552.7	846.7	1,055.1	806.8	589.9	△26.9%
2	캐나다	18.1	27.5	45.9	52.0	49.3	49.1	△0.3%
3	네덜란드	8.3	8.6	12.8	20.8	19.6	34.1	73.6%
4	필리핀	6.0	4.4	4.6	3.5	7.5	26.0	245.4%
5	호주	16.4	27.8	46.0	48.5	49.9	25.6	△48.6%
6	일본	24.0	22.2	22.7	23.0	19.4	14.8	△23.8%
7	독일	14.1	18.8	24.1	15.7	10.5	11.4	9.1%
8	멕시코	1.6	2.4	4.2	10.2	17.9	11.0	△38.6%
9	튀르키예	0.4	2.6	1.3	0.2	0.6	10.9	1,641.3%
10	포르투갈	10.2	10.6	14.5	11.5	8.0	10.7	34.3%
전체 수출		704.9	773.8	1,133.2	1,365.4	1,105.4	883.6	△20.1%

## ○ 2025년 농기계 분야 수출은 지난해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농기계 수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북미·유럽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의 감소세가 지속되나,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한 자릿수의 감소율(△9~△8%)을 기록할 전망

\*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미국-캐나다 간 관세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국내업체의 미국법인에서 캐나다로 트랙터를 수출할 때, 현지 판매가격이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다만, 국내 종합형 3개사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계기로 수출 다변화 및 해당 지역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 중이며, 관련하여 트랙터·작업기 현지 총판 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수출의 소폭 회복을 기대

\* (대동) 우크라이나 현지 농기계 수입 총판과 3년간 300억 원 규모 트랙터를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대형 모델인 PX/HX 트랙터 20대를 선적할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2024.11.)

39) 한국무역협회, MTI 728(농기계) 기준, 상위 10개국은 2024년 11월 누계 기준으로 도출

##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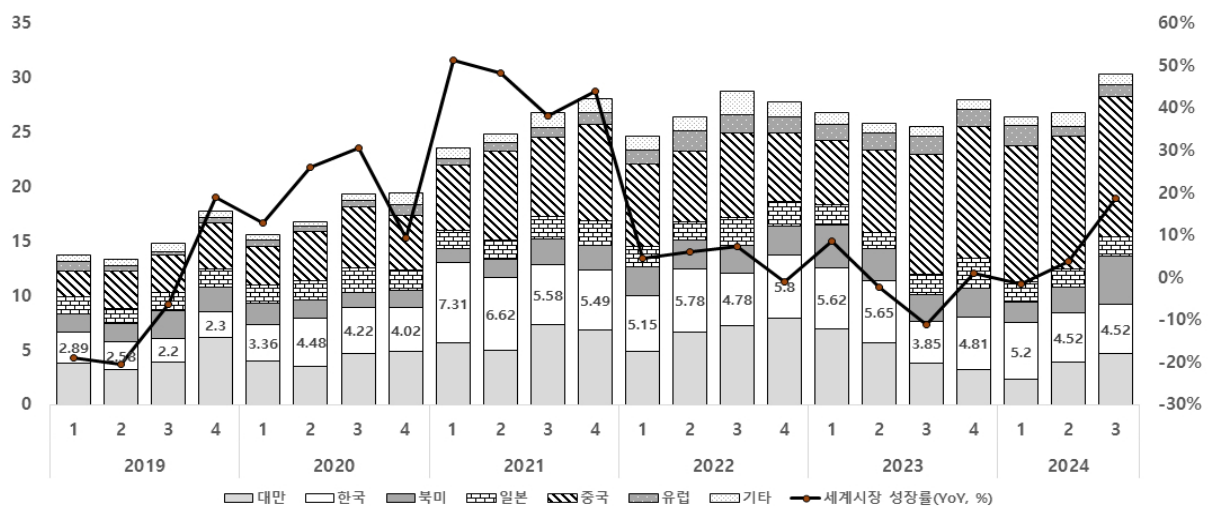
○ (반도체 장비) 반도체 수급 조절과 수요 회복 노력으로 2023년 3분기 이후 시장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2025년에도 반도체 장비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4분기 이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반도체 업체의 투자가 지속될 예정

\* 한국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3년 2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보이고 2024년은 58% 감소했으나 최근 회복세로 전환

- AI 산업 성장과 함께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HBM<sup>40)</sup>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장비, 부품의 성장도 전망<sup>41)</sup>

\* 2024년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53%), 삼성전자(38%)가 약 90% 이상 차지<sup>42)</sup>



<그림 18>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십억 달러)<sup>43)</sup>

-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24.5%)한 86.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 수출 수준으로 복귀(2021년 84.3억 달러)

- 고부가 메모리 수출은 늘고 범용 메모리 수출은 감소하는 메모리 반도체 양극화와 글로벌 정세 불안 등으로 2025년 수출은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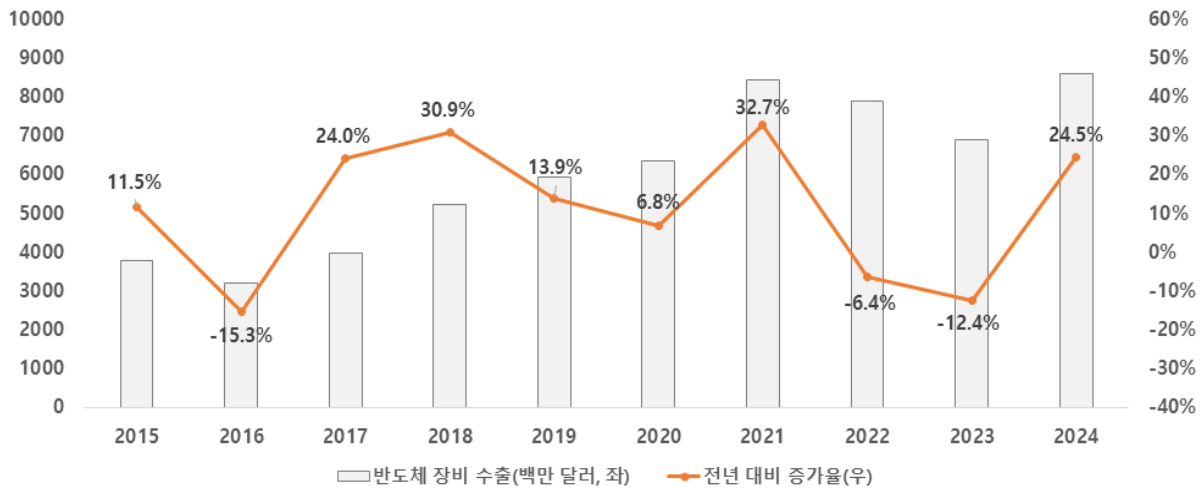
\* 고부가 메모리(HBM 등) 수요 증가 및 메모리 가격 조정으로 2024년 수출 증가

40) HBM: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로, 고대역폭 메모리이며 고성능 컴퓨터, AI 등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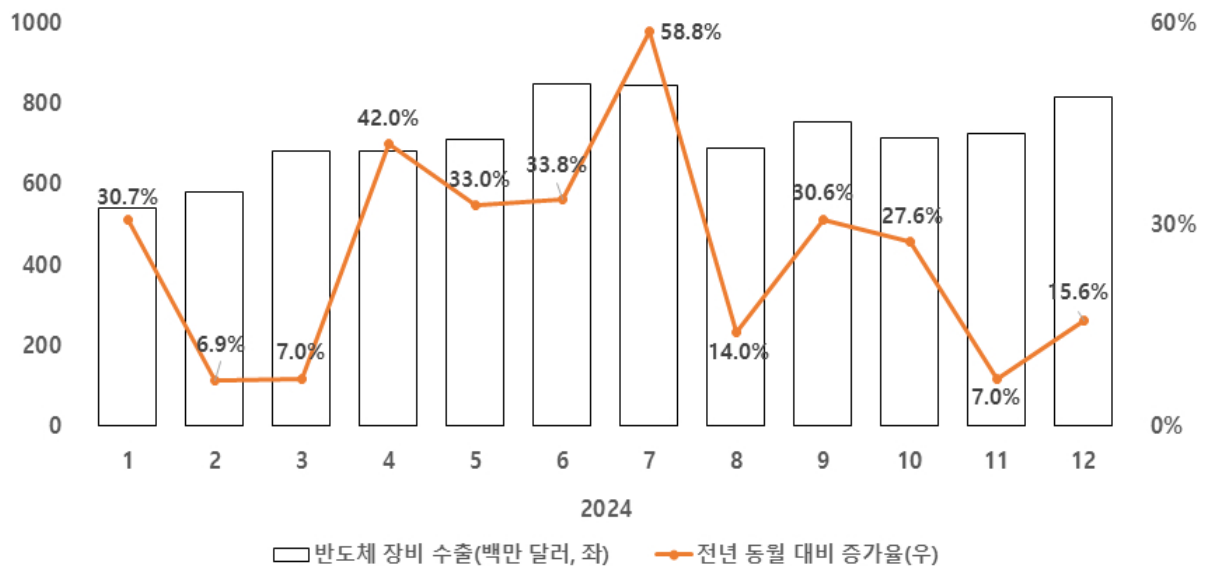
41) 삼성KPMG, 2025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2024.12.

42) JP모건, ASIC HBM 시장 심층분석, 2025.1.

43) SEMI,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orld Wide SEMS Report, 2025.1.



<그림 19> 국내 반도체 장비 연도별 수출<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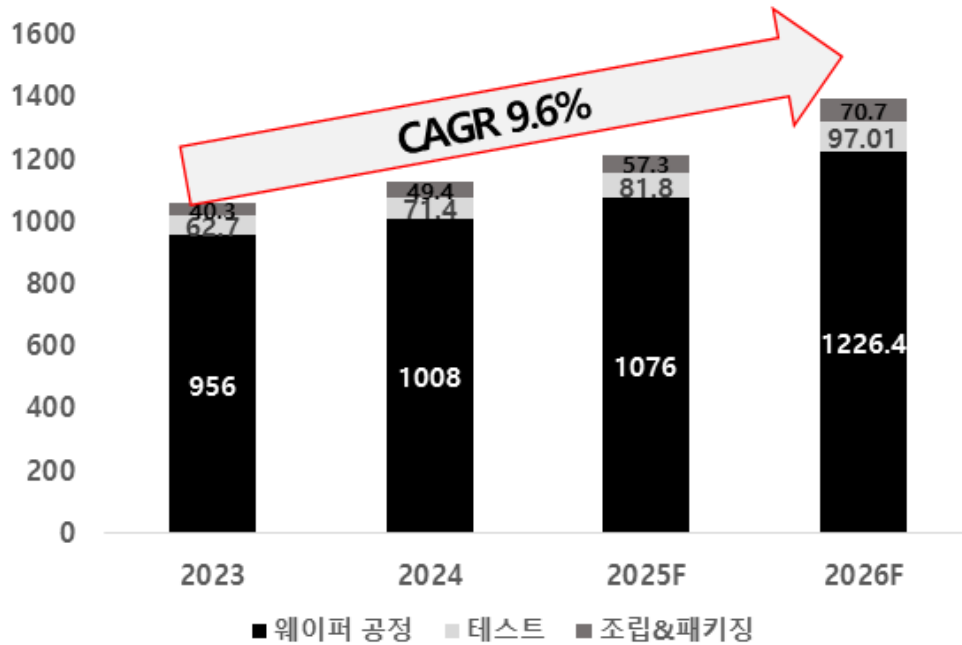


<그림 20> 국내 반도체 장비 월별(2024년) 수출<sup>45)</sup>

-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1,1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부가메모리 수요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한 1,215억 달러 전망
- \*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SEMI, VLSI Research): 1,059억 달러(2023년) → 1,128억 달러(2024년) → 1,215억 달러(2025년)
- \* 2025년에는 AI산업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공정·후공정 모두 성장 예상

44)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통계(MTI 732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인용 및 재구성

45)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통계(MTI 732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인용 및 재구성



<그림 21> 분야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억 달러)<sup>46)</sup>

- 메모리 가격 상승 및 AI산업 인프라(서버 등)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2024년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20.4% 증가하였고 2025년도는 13.3% 성장할 전망
- 2025년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양극화 및 글로벌 정세 불안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소폭 상승한 1,45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은 증가하고 기존 PC, 스마트폰 등의 범용 메모리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8>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억 달러)<sup>47)</su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금액	YoY(%)	금액	YoY(%)
전체	5,908	5,344	6,434	20.4	7,288	13.3
메모리	1,391	935	1,647	76.3	1,885	14.4
비메모리	4,518	4,409	4,787	8.6	5,403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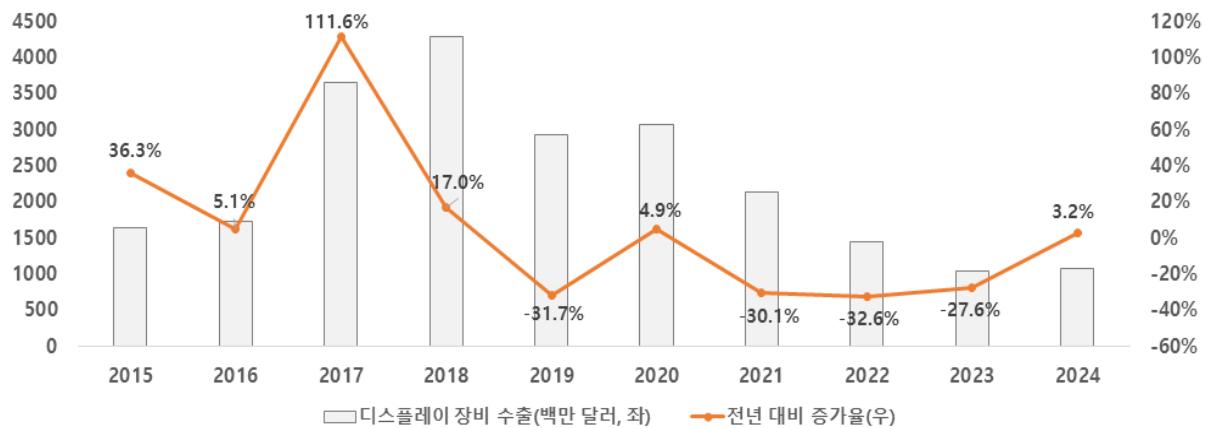
-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의 미국 일괄 관세 부과로 對미 반도체 수출은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sup>48)</sup>

46) SEMI 시장 분석 보고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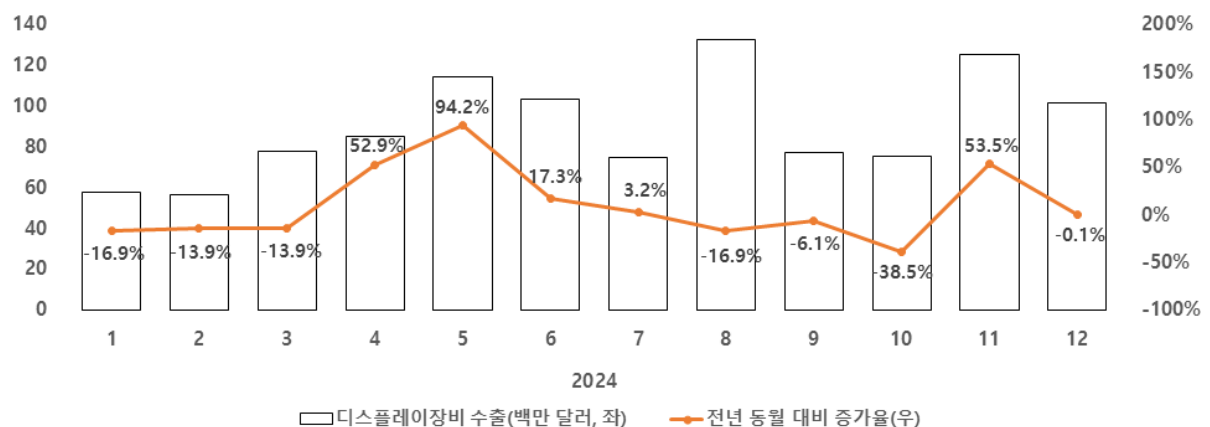
47) Gartner ISS 2024(글로벌 반도체 업체 시설 투자규모 전망 보고서) 인용

48) 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분석, 2025.1.

- (디스플레이 장비) IT 제품 등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과 2023년 기저효과 등으로 2024년 소폭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73.1%)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3.2% 증가
  - \* 총수출(10.8억 달러)은 최저점인 2023년(10.5억 달러) 대비 3.2% 증가하였고 2020년 이후 지속적인 30% 수준의 큰 폭의 하락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
- LCD는 기저효과 등에 따라 2024년 수출은 2023년 대비 7.7% 증가하였고, OLED는 중국 OLED 자급률 상승 등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수출이 1.4% 감소
- 중국의 OLED 설비 투자 확대에 對중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IT기기 중심의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그림 22>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연도별 수출<sup>4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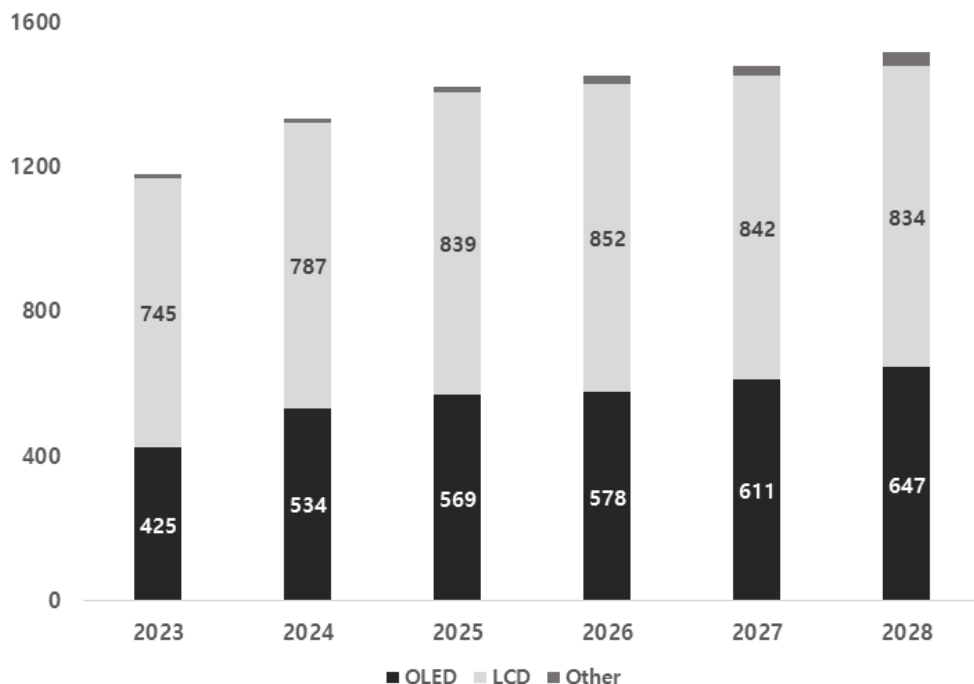


<그림 23>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월별(2024년) 수출<sup>50)</sup>

49)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통계(MTI 736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인용 및 재구성

50)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통계(MTI 736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인용 및 재구성

-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상반기부터 애플의 ‘아이폰 SE4’ OLED 패널 공급을 시작으로 2024년 대비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sup>51)</sup>
  - \* LGD 2025년 1분기 모바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4조 원 전망
  - \* 미래 OLED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8.6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LGD는 자금확보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운 상황
- 2024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노트북, 태블릿 등 IT 기기의 수요 회복으로 2023년 대비 약 47% 성장하였고 2025년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장비 투자는 2024년 대비 6% 감소한 70억 달러로 전망<sup>52)</sup>
    - \* OLED 장비 지출은 2027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27년에는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BOE(중국)의 8.6세대 OLED(중소형 디스플레이) 11.4조 원 투자 본격 추진 등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OLED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삼성디스플레이: 4.1조 원 투자 예정으로 2026년까지 8.6세대 IT OLED 라인 구축 예정<sup>53)</sup>
-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2023년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주요 업체들의 차세대 OLED 관련 장비 투자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그림 24> 글로벌 디스플레이(LCD, OLED 중심) 시장 전망(단위: 억 달러)<sup>54)</sup>

51) 비즈니스포스트 기사 인용 및 재구성([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869](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869))

52) DSCC, DSCC Quarterly Display CAPEX and Equipment Market Share Report, 2024.8.

53) 한국금융신문 기사 인용 및 재구성([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015151821707492587736\\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015151821707492587736_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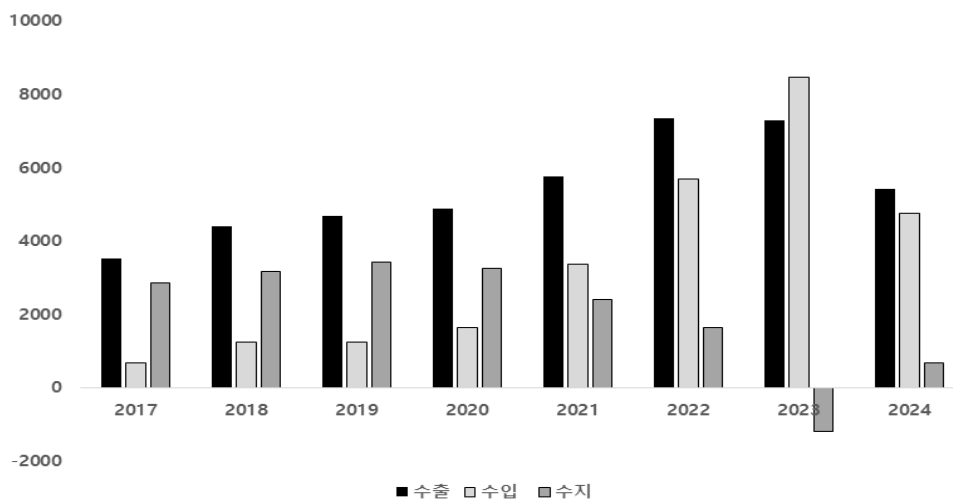
- 중국은 라인 증설 및 저가 공세로 전체 LCD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 BOE의 공격적인 OLED 투자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9>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괄호 안 순위)<sup>55)</sup>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중국	36.7%(2)	41.3%(1)	42.5%(1)	47.9%(1)	52.5%(1)
대한민국	36.8%(1)	33.3%(2)	36.9%(2)	33.4%(2)	30.2%(2)
대만	22.5%(3)	23.1%(3)	18.2%(3)	16.7%(3)	15.7%(3)
일본	3.6%(4)	1.9%(4)	2.1%(4)	1.7%(4)	1.3%(4)
기타	0.5%	0.4%	0.3%	0.3%	0.3%

#### □ 이차전지 장비<sup>56)</sup>

- 이차전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25.5% 감소한 54.2억 달러를 기록
  -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전기차 캐즘, 중국 배터리 자금률 확대 등으로 2024년 급감



<그림 25> 연도별 이차전지 수출입 통계(단위: 백만 달러)<sup>57)</sup>

54)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통계자료 인용 및 재구성

55) OMIDA, KDIA 디스플레이 산업 분석보고서 인용

56) 현재 이차전지 제조장비용 생산, 수출입 통계코드가 없어 본고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과와 전망을 작성

57) HS코드 850760(리튬이온축전지) 기준으로 통계 산출함. 이차전지는 MTI 코드가 없음

〈표 10〉 이차전지 주요국 대상 수출 현황(백만 달러)<sup>58)</sup>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1	미국	587	817	2,189	3,472	4,148	2,994	△27.8%
2	독일	892	968	934	1,005	638	169	△73.6%
3	일본	187	176	145	265	309	263	△15.0%
4	중국	578	627	438	279	304	363	△19.3%
5	인도	12.8	8.7	50	235	297	217	△26.9%
6	벨기에	5.1	7.3	24	79	284	189	△33.3%
7	베트남	437	349	349	421	239	376	57.3%
8	대만	109	75	46	191	235	110	△53.1%
9	이탈리아	24	62	80	147	93	100	7.0%
10	헝가리	129	102	199	219	86	81	△6.3%
전체 수출액		4,678	4,879	5,759	7,341	7,274	5,417	△25.5%

-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역수입량이 크게 늘어 2023년 이차전지 수입이 2022년 대비 50.7% 증가
- 베트남,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2024년 이차전지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
- 이차전지 제조장비는 전극-조립-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류 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 크게 의존

〈표 11〉 글로벌 이차전지 장비시장(단위: 억 달러)<sup>59)</sup>

공정	2022년	2024년	2026년	2030년	CAGR
전극공정	36.1	55.2	93.0	167.1	15%
조립공정	42.0	62.9	104.3	1809	14%
활성화 공정	38.5	56.9	93	156.8	13%
합계	111.6	175.0	290.3	504.8	14%

- 이차전지 제조장비시장은 전기차 캐즘을 2025년 하반기부터 극복하여 연평균 성장률 1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이차전지 업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EU지역에서의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하락

\* (CATL(중국))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58) 한국무역협회, HS 850760 기준, 상위 10개국은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 도출

59)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기술정책지 117호, 이차전지 제조장비 동향과 차세대 이차전지 장비 전망, 2024.12.

- 향후 대응을 위해 이차전지 업계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나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폭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

<표 12>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증설 전망(단위: GWh)<sup>60)</sup>

지역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국	25	28	28	28	28
중국	100	130	130	150	150
유럽	70	92	92	92	92
북미	55	115	267	327	327
기타	-	12	12	55	55

- 2025년 이차전지 산업은 수출입, 내수, 생산 모두 2024년 대비 10~15% 하락할 것으로 전망<sup>61)</sup>
  - 이차전지 총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이 캐즘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2025년에는 2024년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
  - EU, 미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도 이차전지 수요 증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표 13>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sup>62)</sup>

정책기조	국가	기존	변경
보조금 폐지	독일	2024년 말까지, 4만 유로 미만 전기차 4,500유로 지급	1년 앞당겨 2023년 12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영국	32만 파운드 미만 전기차 최대 1,500파운드 지급	2022년 보조금 폐지
	노르웨이	전기차 세제 공제(부가가치세, 중량세 면세)	2023년 세제 혜택 폐지
	중국	2017년부터 최대 6만 위안에서 점차 축소하여 지급	2023년 보조금 폐지
보조금 축소	한국	2023년 기준으로 600만 원 내외 지급	2024년부터 약 100만 원 축소
	미국	IRA 기준 최대 7,500달러 지급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축소 (43 → 19종), IRA 축소 가능성
	프랑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000유로 지급	고소득자 지원 보조금 20% 축소

60) PWC 삼일회계법인, 한국산업의 돌파구를 찾아서: 2025년 산업전망, 2024.12.

61)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_13대 주력산업편, 2024.11.

62)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재구성함

## 주요기관의 기계산업·제조업 2025년 전망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전망
- (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24년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동통신기기
  - (업종별 전망) 바이오헬스 5.3%, 일반기계 2.1%, 석유화학/석유제품 1.8%, 전기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이동통신) 1.5%, 선박 1.3%, 자동차/부품(자동차, 자동차 부품) △1.4%, 철강 △0.3% 순
  - (수출 감소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등
  - (수출 증가 요인) 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27.6%),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27.6%), 수출국가 다변화(18.4%) 등을 지목
- (한국산업은행)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 약화 예상
  - (업종별 전망) 반도체와 자동차는 둔화, 철강은 수축, 디스플레이와 조선은 회복, 일반기계는 보합 전망
  - (업종별 생산 증감률(%) 전망, 2024 → 2025) 반도체 35.6 → 3.7, 자동차 △24 → △25, 철강 △2.2 → 0.1, 디스플레이 5.2 → 4.0, 조선 15.0 → 8.7, 일반기계 △0.4 → △0.3
  - (업종별 수출 증감률(%) 전망, 2024 → 2025) 반도체 37.0 → 6.5, 자동차 0.7 → △4.1, 철강 1.5 → 1.3, 디스플레이 6.5 → 5.4, 조선 15.2 → 5.6, 일반기계 2.9 → 1.5
- (산업연구원) 2025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
  -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 (분야별 전망) 정보통신기기·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철강·섬유·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부정적 기조가 우세

### 3.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건설경기 불황,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2024년 기계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 2025년 생산 및 수출은 감소(2~4% 수준) 전망
- (2024년) 생산은 2.8% 감소한 150.1조 원으로 추정, 수출은 소폭 감소한 609억 달러, 수입은 3.8% 증가한 538억 달러 수준 기록
-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제조업 자립과 부동산 위기 등이 기계산업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출 실적 둔화를 야기

〈표 14〉 기계산업 생산, 수출입 2024년 전망과 실적 비교

분류	2024년 전망 <sup>63)</sup>	2024년 실적	전망 대비 실적 비교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경제성장 정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급등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0~2% 수준의 소폭 성장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기계산업 생산은 2.8% 감소한 150조 원 수준</li> <li>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전반적인 생산 경기 위축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망과 상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며 전망과 달리 생산액이 감소</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랜트, 건설기계는 안정 혹은 호황</li> <li>공작기계, 반·디 장비는 침체</li> <li>수출액은 0~2% 수준의 소폭의 성장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기계산업 수출은 0.8% 감소한 609억 달러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망에 부합) 산업기계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반·디 장비의 수출 회복으로 전망에 부합</li> </ul>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입 또한 소폭의 성장(0~2% 수준)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기계산업 수입은 3.8% 증가한 538억 달러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망과 상이) 2024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li> </ul>

- (2025년)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속되지만 중동, 미주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긍정적 요인도 존재
- 주요 기관\*은 2025년 기계산업이 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요회복으로 전년 대비 정체 혹은 소폭의 성장을 예상
- \* KDI, 산업연구원, 전경련 등 경제 성과 및 전망을 제시한 기관
- 중동발 인프라 특수 등 플랜트, 건설 산업의 성장이 예상이 기대되나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이차전지 수요 감소가 수출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힘

63) 기계산업 2023년 성과와 2024년 전망(기계기술정책지 115호)에서 전망한 부분 인용

- **(2024년 업종별 실적)** 대부분 업종에서 침체였으며, 플랜트 산업은 호황,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는 안정
  - (공작기계, 침체) 공작기계 수주 누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고, 미국·중국·유럽 등 주력시장의 수출 감소로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13.9% 감소
  - (플랜트, 호황) 중동지역의 대형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 증가 등(전년 대비 37.5% 증가)으로 전년 대비 12.9% 수주액이 증가
  - (에너지기계, 침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 둔화로 가열난방기 수출이 급감(△30.2%)하여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
  - (건설기계, 침체/불황) 2024년 건설기계 수출은 對미 수출 급감으로 인해 51.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
  - (농기계, 침체/불황) 對미 농기계 수출 급감(△44.1%)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8.8억 달러 수준을 기록
  - (반도체 장비, 안정) 2021년 최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반도체 장비 수출은 반등하여 전년 대비 24.5%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
  - (디스플레이 장비, 안정) IT 제품 등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과 2023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 (이차전지 장비, 침체) 전기차 캐즘, 중국 배터리 자급률 확대 등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 대비 25.5% 감소한 54.2억 달러 기록
- **(2025년 업종별 전망)** 플랜트 산업은 호황을 이어가지만 전반적으로 침체일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는 안정, 이차전지 장비는 불황이 예상
  - (공작기계, 침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2025년 공작기계 생산은 3.0% 감소, 수출은 5.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플랜트, 호황) 중동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전 등의 에너지 대형 프로젝트도 기대되어 2025년 플랜트 수주액은 400억 달러(2024년 대비 18.6%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기계, 침체) 미국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련 품목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국, 유럽 등의 주요시장의 수출 감소로 소폭(2~4%)의 수출 감소를 전망

- (건설기계, 침체) 국내 건설경기 부진 및 북미·유럽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2025년 건설기계 수출은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농기계, 침체) 對미 농기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2024년 기저 효과로 2025년 농기계 수출은 2024년 대비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장비, 안정) 2025년 반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소폭(3~5% 수준) 상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반도체 장비 수출 또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장비, 안정) 2025년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는 2024년 대비 6%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3년 기저효과가 2025년에도 이어져 3~5% 수준의 수출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장비, 불황) 전기차 캐즘, 트럼프 2기 출범 등의 전기차 약재가 지속됨에 따라 이차전지 생산, 수출입 모두 2024년 대비 10~15%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5〉 기계산업 세부 업종별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세부 업종명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비고
공작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공작기계 수주/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li> <li>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생산, 수출 모두 감소 전망</li> </ul>
플랜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동지역 대형 담수&amp;발전 플랜트 수주 증가</li> <li>2025년 플랜트 수주액은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li> </ul>
에너지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내수시장 성장둔화가 수출 감소에 영향</li> <li>중국·유럽 등의 주요시장 수출 감소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li> </ul>
건설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미 수출 급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출 기록</li> <li>국내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2025년 건설기계 수출은 3~4% 감소 전망</li> </ul>
농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對미 농기계 수출 급감(전년 대비 44.1% 감소)</li> <li>농기계 수출 감소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li> </ul>
반도체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수출은 반등하여 전년 대비 24.5% 증가</li> <li>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시장 수요 증가로 2025년 반도체 장비 수출은 소폭 상승 전망</li> </ul>
디스플레이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제품 등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으로 수출 반등</li> <li>2023년 기저효과와 지속으로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 전망</li> </ul>
이차전지 장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캐즘,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이차전지 장비는 시장 불황이 전망</li> </ul>

주) ☔: 불황, ☹: 침체, ☀: 안정, ☀: 호황

- (국외 경제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2025년 경제 성장은 2024년 수준의 소폭 성장 전망
- 2025년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 정책 완화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등의 제약 요인도 상존<sup>64)</sup>
-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3.2% 내외, 우리나라는 2% 수준으로 전망
    - \* 미국(2.4%)·일본(1.5%)·유럽(1.3%)·중국(4.7%) 등 OECD의 전망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한국(2024년 2.3%, 2025년 2.1%)은 글로벌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예상
  - 글로벌 제조업 투자는 개선이 기대되나 미국 무역관세 정책의 변화, 중국 경기 둔화 지속 등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 시행 등의 반등 요인도 존재
-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산업 성장 등의 수요 회복의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
    - \* 전기차 캐즘 등의 부정적 요인과 더불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에너지, 경제 정책 변화가 미국 시장의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sup>65)</sup>
  - (유럽) 구매 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긍정적 여건이 기대
  - (중국) 2025년도 경제성장 정세에 따라 제조업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IT 기기 수요의 호조세,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국산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일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의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sup>66)</sup>

64) 산업연구원, 2025년 거시경제 전망, 2025.1.

65)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20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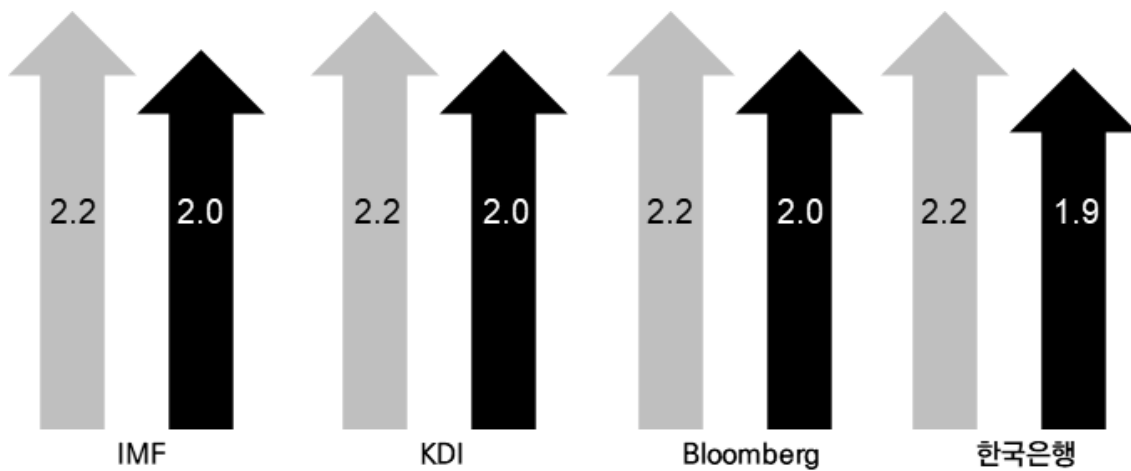
66) 한국은행, 2025년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4.12.

□ (국내 경제 전망)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소비와 설비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경기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2025년에도 이어져 전체 수출액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기 정체가 지속되어 대부분 산업에서 對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중동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일본, EU 등의 경제성장률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26> 주요 기관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좌: 2024년, 우: 2025년)<sup>67)</sup>

○ 주력 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어 2024년 대비 2.2% 증가한 5,3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sup>68)</sup>

- 자동차( $\Delta$ 2.7%), 정유( $\Delta$ 7.5%), 이차전지( $\Delta$ 6.7%)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기계 산업군은 조선(4.1%), 일반기계(0.2%) 산업의 수출 증가 예상

\* 전기차 캐즘의 지속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용 패널을 비롯한 디스플레이 수요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선사의 고가 LNG 운반선의 대량 인도로 전년에 이어 조선의 수출 성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계 품목의 수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67) PWC 삼일회계법인,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2024.12.

68) 산업연구원,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024.11.

## 참고문헌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8년 성과와 2019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19.2.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9년 성과와 2020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20.2.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20년 성과와 2021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21.2.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21년 성과와 2022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22.2.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23.2.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23년 성과와 2024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2024.2.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10.
- 농민신문, '세계 4위 트랙터시장 튀르키예를 잡아라...', 2024.10.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5년 건설경기 전망', 2024.12.
- 비즈니스포스트, 'LG디스플레이 아이폰SE4와 구조조정 효과...', 2025.2.
-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2024.11.
- 산업연구원, '일반기계산업 수출구조 및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2024.10.
-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_13대 주력산업편', 2024.11.
- 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분석', 2025.1.
- 산업연구원, '2025년 거시경제 전망', 2025.1.
- 삼정KPMG, 2025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2024.12.
- 이데일리, 'LG화학, NCC 매각 임박...속도 내는 석유화학 구조재편', 2024.12.
- 인더스트리 투데이,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프로젝트...', 2024.11.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5년 일반 산업 전망', 2024.10.
- 한국경제, '파달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수주...', 2024.4.
- 한국금융신문, '또 타이망 농칠라...LG디폴, 8.6세대 OLED 투자...', 2025.2.
- 한국금융연구원,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2024.11.
- 한국수출입은행, '2025년 경제 산업 전망', 2024.12.
- 한국은행, '2025년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4.12.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5년 전망', 2025.1.
- DSCC, 'DSCC Quarterly Display CAPEX and Equipment Market...', 2024.8.
- JP모건, ASIC HBM 시장 심층 분석, 2025.1.
- PwC 삼일회계법인, '한국산업의 돌파구를 찾아서: 2025년 산업전망', 2024.12.
- SEMI,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orld Wide...', 2025.1.

**[URL]**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일본공작기계협회 JMTBA (<http://www.jmtba.or.jp/english/>)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https://www.kdia.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통계 (<http://kpia.or.kr>)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통계 (<http://www.kopia.or.kr/info/statistics.php>)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www.icak.or.kr](http://www.icak.or.kr))  
 Gartner (<https://www.gartner.com/>)  
 iCEMA (<https://www.i-cema.in/knowledge-centre/industry-statistics/>)  
 Investing.com (<https://investing.com>)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www.stats.gov.cn/english/>)  
 SIMTOS 산업정보 ([http://c.simtos.org/user/kor\\_index\\_main.jsp](http://c.simtos.org/user/kor_index_main.jsp))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Trading Economics (<https://ko.tradingeconomics.com/>)  
 VLSIresearch (<https://www.vlsiresearch.com/>)



## 기계기술정책 발간 목록

제 목	작성 연월
78. 기계산업 2014년 성과 및 2015년 전망	2014.12.
79. 최근 기계산업 대일무역역조 개선의 원인과 시사점	2015.06.
80. 기계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15.10.
81.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경쟁력 강화 방안	2015.12.
82. 기계산업 2015년 성과와 2016년 전망	2016.01.
83. 건설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경쟁력 강화 방안	2016.05.
84. 4차 산업혁명과 기계산업의 미래	2016.11.
85. 기계산업 2016년 성과와 2017년 전망	2017.02.
86.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농촌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의 기회	2017.07.
87. 해외 선도 기관과의 기계기술 연구 분야 비교 분석	2017.11.
88. 산업용 로봇 시장 동향과 대응	2017.12.
89. 기계산업 2017년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01.
90. 새로운 시대 소통 역량: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	2018.07.
91. 국방분야 생존성 향상 기술 동향	2018.08.
92.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의 부상과 시사점	2018.09.
93. 기계산업 2018년 성과와 2019년 전망	2019.02.
94. 중국제조 2025 주요 제조장비 개발 계획과 대응 전략	2019.06.
95. 한·중·일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수출경쟁력 분석 및 제언	2019.07.
96.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	2019.12.
97. 기계산업 2019년 성과와 2020년 전망	2020.01.
98.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 분석	2020.02.
99.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유망 기계기술 및 제언	2020.06.
100. 우리나라 제조장비기업의 성장·혁신·수익 패턴 분석과 시사점	2020.08.
100(특집호). 기계산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방법 제언	2020.08.
101.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기계기술 제언	2021.01.
102. 기계산업 2020년 성과와 2021년 전망	2021.01.
103. 수소 산업의 글로벌 기술동향 및 정책 전망	2021.05.
104. 인체 증강 기계의 동향과 전망	2021.08.
105.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계산업 시사점	2021.12.
106. 기계산업 2021년 성과와 2022년 전망	2022.02.
107. 일본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특징과 시사점	2022.04.
108.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암모니아 기술의 부상 및 시사점	2022.07.
109.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2022.11.
110. 공작기계 및 산업혁신 연구의 체계적 고찰과 시사점	2022.12.
111. 기계산업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	2023.02.
112. 바이오장비 산업 동향 및 시사점	2023.06.
113. 일본의 최신 수소경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3.09.
114. 지능형 로봇 및 생성형 AI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24.01.
115. 기계산업 2023년 성과와 2024년 전망	2024.02.
116. 산업용 히트펌프 동향과 대응 방향	2024.08.
117. 이차전지 제조장비 동향과 차세대 이차전지 장비 전망	2024.12.
118.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2025.02.



## 기계기술정책

Technology Policy for Mechanical Engineering

:: No. 118 기계산업 2024년 성과와 2025년 전망

| 발행인 | 류석현

| 발행처 | 한국기계연구원

| 발행일 | 2025.02.

| 기획·편집 | 기계정책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 전화 | (042) 868-7539

